



[정책, 단신]

□ 대만 기업의 미국 특허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과 대만의 특허 활동의 통계적 비교분석 -

- 특허정보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논문인 World Patent Information에 실린 최근 논문에서 대만기업의 미국특허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 특허청의 정성창 사무관과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임근영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198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 대만, 그리고 미국의 국가별 특허통계를 이용하여 한국과 대만의 미국 특허등록율을 조사한 것이다.
- 이에 따르면, 한국은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국내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은 급감하나 미국출원은 감소하지 않으며, 한국인에 의한 미국 출원율은 분석 기간동안 평균 7.5%이다. 또한 한국인에 의한 미국 등록율은 평균 66.3%이다. 또한 한국의 특허등록율이 9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은 삼성전자의 특허전략변화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대만의 경우 대만의 국내 특허출원보다 더 많은 건수가 미국으로 출원되었으며 그 비율은 약 160%에 이른다. 이것은 대만의 실용신안이나 의장까지도 미국으로 출원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대만의 미국 특허등록율은 한국의 그것에 비하여 낮은 약 평균 53.4%이다. 그러나 대만의 특허등록율은 한국의 등록율이 굴곡이 있음과는 달리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만기업의 미국특허

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일본, 의료발명 특허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생명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학 적 치료와 관련된 기술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내주는 기준에 있어서 주요 국가에 비해 뒤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현행 일본의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가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다. 일본 특허청에서는 의학 적 치료 분야는 산업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의학 적 치료 방법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치료방법을 포함해서 의료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고, 이것이 동 분야의 벤처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유전자치료법, 배아 세포를 활용한 기술 등 의료기술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직까지 부여되고 있지 않으며, 의료분야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일본의 특허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뛰어난 연구결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 특허시스템은 그 연구결과가 실용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현재 일본 정부는 지적 재산권 전체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의료발명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를 허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즉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을 할 경우 특허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의료발명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의사들에 대한 면책조항 등을 통해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의 특허 출원 상황에 대해서 보면 1973년에 물리학상을 수상한 江崎박사 이후 小柴박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표 2 참조)

일본의 노벨상과 특허

- 2000년 白川英樹, 2001년의 野依良治에 이어, 금년의 노벨 화학상을 시마즈 제작소의 田中耕一이 수상했다. 또한 2002년 노벨 물리학상을 도쿄 대학 명예 교수 小柴昌俊이 수상했다. 2001년 3월에 각의에서 결정된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서는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정도」라는 목표가 있는데 3년 연속해서 노벨 화학상 수상 및 물리학·화학상의 동시 수상은 일본의 연구 수준이 높음을 세계에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의 연구자는 국민 전체에 큰 격려와 자랑을 주는 것이다.
- 금년 노벨상 수상자의 특허 출원 상황에 대해서 보면 田中耕一을 비롯한 6명의 수상자가 일본, 미국, 유럽에 특허 출원을 하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2002년 노벨상 수상자의 특허 출원 건수

수상자	국적	분야	특허출원처		
			일본	미국	유럽
田中 耕一	일본		12	1	1
John B. Fenn	미국	화학	9	23	8
Kurt Wuethrich	스위스		2	3	6
小柴 昌俊	일본		0	0	0
Raymond Davis Jr.	미국	물리학	0	0	0
Riccardo Giacconi	미국		0	1	0
Sydney Brenner	영국		3	38	55
H.Robert Horvitz	미국	의학·생리학	2	11	2
John E. Sulston	영국		0	0	0

* 2002년 10월까지 출원 공개 또는 등록된 건수

(표 2) 노벨상 수상자의 특허 출원 건수

수상 년도	수 상 자	분 야	특허출원처		
			일본	미국	유럽
2002	田中 耕一	화학상	12	1	1
	小柴 昌俊	물리학상	0	0	0
2001	野依 良治	화학상	167	40	72
2000	白川 英樹	화학상	33	9	4
1987	利根川 進	의학·생리학상	3	9	3
1981	福井 謙一	화학상	3	9	23
1973	江崎 玲於奈	물리학상	19	33	23
1965	朝永 振一郎	물리학상	0	0	0
1949	湯川 秀樹	물리학상	0	0	0

* 2002년 10월까지 출원 공개 또는 등록된 건수

중국의 모조품 관련 최근의 움직임

[자료원 : 일중경제협회 지재뉴스 12. 5]

○ 珠海세관, Toshiba 토너처분

珠海세관은 Toshiba의 모조 토너와 카트리지 5500개 약 1570kg을 일제히 처분하였다. 동세관은 금년 4월에 Toshiba의 상표권침해 의심이 있는 동물품을 발견하고 Toshiba에 확인을 구한 후에 몰수하였다. 그 자리에는 본사에서 온 Toshiba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廈門당국, 모조품 통보에 최고 30만 위안 의장려금

아모이(廈門) 시제정국, 공상행정관리국, 질량기술감독국의 3개부처는 최근 모조 브랜드품의 제조, 판매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통보에 대한



장려금을 최고 30만 위안으로 증액하였다. 또 통보사실이 확인되면 모조품 제조업자 적발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규모에 응하여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장려금 지불을 위한 심사도 간소화하였다.

○ 遼寧省, 녹색식품 단속에 성과

遼寧省은 금년들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조녹색식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는등 단속이 큰성과를 거두고 있다. 상표권 침해기업 65사가 단속을 받고 75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 哈爾濱, 모조품의 합법적 판매를 개시

흑룡강성 하얼빈시의 국유기업인 하얼빈 신탁 무역공사가 최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으로부터 상표등록 허가를 받아「信廉」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동공사는 시정부의 위탁을 받아 아직 이용가치가 있는 인체에 해가 없는 모조품을 「信廉」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동 공사는 모조품의 실질가치에 기하여 정가를 결정하며 상품을 소비자에 직접 판매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2차 유통은 금지된다.

○ 중국판권 협회, 반해적판 위원회를 설립

중국판권협회의 반해적판 위원회가 10월 25일 북경에 설립되었다. 저작권자와 저작권보호조직등에 의한 사회단체로서 전국에 걸쳐 해적판 제조행위를 즉시 발견, 통보, 식별체제구축을 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 의하면 관계 단체는 반해적판 연락 감독원을 두고 위원회 또는 관계부처에 해적판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또한 중국 저작권 정보망에는 해적판 정보 사이트(www.ccopyright.com.cn)

가 설치되고 통보 핫라인도 설치되었다.

[분쟁, 판례]

□ 캐나다 대법원, 하버드 마우스에 대해 특허권 불허 판결

- 캐나다에서 과학적 연구에 큰 의미를 갖을 수 있는 판결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5일에 암에 쉽게 걸리도록 유전자 변형된 쥐 또는 다른 포유 동물에 대하여 특허권 불허 판결을 함으로써 캐나다에서 특허를 얻려고 17년간 하버드 대학이 벌여온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 대법관 9인중 5 대 4의 다수 의견으로 하버드 마우스의 특허 권을 불허하는 판결의 판결문을 쓴 캐나다 대법관 Michel Bastarache 판사는 “캐나다의 1896년 특허법에 의하여는 쥐와 같은 고등생물(higher life forms)에 대한 특허를 주도록 되어있지 않으며 쥐는 현행 캐나다 특허법상의 발명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 일명 Oncomouse라고 불리우는 이 실험용 쥐는 Harvard대학 이 암연구를 위하여 개발한 실험용 쥐로서 1988년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이후 일본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 으며 현재 DuPont사에 생산 라이선스되어 세계에 공급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캐나다 특허청은 1993년 하버드대학이 출원한 이 쥐와 이 쥐의 자손에 대한 특허 출원을 거절하였고 이는 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지지되었다가 2000년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에서는 캐

나다 특허법이 동물특허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반대의 판결을 얻었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특허를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다.

- 하버드 대학은 이 특허가 유사한 연구분야에서 주도권을 쥐도록 보장하는, 암과의 전쟁에서 귀중한 연구 Tool이라는 점에서, 쥐의 원본과 그 자손 내지 생성물(offspring)에 대한 특허를 갈구해 왔으며 더 나아가서 이 특허가 인간이 아닌 포유동물에도 적용되도록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하버드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판결에 비판자들은, 이번 판결로 연구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캐나다 과학자들이 세계 다른 곳에서 일하는 동료과학자들 보다 뒤쳐질 위험에 처하고 캐나다의 과학 연구가 대단히 Damage를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이번 판결은 학계와 산업계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반면 환경운동가들이나 종교계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캐나다 특허청장을 대신하여 Graham Garton은 하버드 마우스에 대한 특허의 허여는 다른 살아있는 생물들에 대한 특허허여라는 개념으로 확대될 것을 염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 WIPO, 도메인네임 Toyoto를 도요타 측에 양도하는 결정을 내림

- WIPO 분쟁중재센터는 「Toyoyo」라고 하는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있던 소유자에 대해 「고의로 혼동하기 쉬운 이름을 붙였던 것이 확실하고 악의가 있다」라고 해, 도메인네임을 도요타 측에 양도하도록 명하는 재정을 내렸다.
- California주에 본사를 둔 미국 도요타 자동차 판매회사는 금년 10월에 「toyoto.com」이라고 하는 도메인네임을 소유하고 있는 피청구자를 상대로 도메인네임의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편 피청구자는 「Toyoto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미의 명칭인가는 대답하지 않아서 반론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 중재센터의 재정에 의하면 이 소유자는 그밖에도 유명 기업이나 영화 제목과 유사한 복수의 도메인네임을 소유하고 있고, 모두 갭 블이나 마약의 처방 등을 선전하는 사이트에 전송되도록 되어 있었다.

제공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제공

발특2003/1